

함평군,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성료

지난달부터 9개 읍·면 총 72개소서 실시

PLS·GAP·생산비 절감기술 등 교육

함평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된 '친환경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이 지역농업인들의 호평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역 9개 읍·면 총 72개소에서 실시된 이번 영농교육에는 작목별 전문지도사 26명이 참여해 1,476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작목별 생산비 절감실천기술 등 농정현안을 집중 교육했다.

특히 교육이 마을회담회 형식으로 진행돼 농가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소하면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교육에 참여한 해보면 한 농가는 "여름철은 병해충이 자주 발생해 현장을 잘 비물 수가 없는데, 매년 작목별 전문가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 주니 영농에 큰 힘이 된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처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영농교육은 끝이 없지만 농업인상향소 3개소는 권역별로 정



상 운영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해 농업인이 살맛

나는 함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화순 '주자 인문학대학' 수강생 모집

화순에서 군민의 인문학 소양을 키우기 위한 '주자(朱子)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이 개설돼 오는 1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주자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은 능주면 천덕리에 있는 주자행복학습센터가 주관해 오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월·화·수요일에 진행한다.

강좌는 논어(論語) 강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학 강의, 화순 지역 명칭시 답사 등 총 21차례 열리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강사진은 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본부의 기세규 교육원장, 탁인석 사단법인 기업진흥원장, 김준전 조선대 국문과 교수, 강원구 한중문

화교류회 회장, 백옥연 광산구청 역사문화 전문위원 등 인문학 최고 강사들로 구성됐다.

주자행복학습센터 관계자는 "화순 농주는 우리나라 주자 철학의 발상지이자 우리나라 유일의 주자 사당이 있는 곳"이라며 "이런 유서 깊은 곳에서 '주자 인문학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화순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http://www.hwasu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화순군 총무과 평생교육팀(379-335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광군 '태청(안골)계곡' 10년 만에 개방

영광군은 영광군 최고봉인 태청산(593m)자락에 위치한 태청계곡을 일제 정비하고 오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1개월간)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년 만에 개방한다.

다목적용 수자원을 확보하고 화장실 및 주차장을 완비했다. 10년 동안 마을 상수 자원 활용과 수자원 확보공사가 지난해 12월 완료되어 계곡형 물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상 및 주변담부 제거 및 쉼터 설치 등 환경조성 또한 마무리 했다.

특히 영광군은 물론 인근 고창군,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등 서해안에서는 유일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태청계곡은 상변이 화강암으로 조성되어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지리산 계곡 등과 비추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명소이다.

대마면 청년회에서는 개방 첫 해인 올해에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취사 및 세제 사용을 금지하고 취식만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흥군, '전국 철인3종 경기' 개최

장흥군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3종경기 대회를 개최한다. '2019 정남진 장흥 전국 철인3종 대회'는 13일과 14일 2일간 수문해수욕장-관산읍 죽창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남·여 혼성 릴레이, 스프린트, 울림피 코스에 하프 코스를 추가해 67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흥군과 장흥군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을 맡았다. 철인3종경기는 한 사람이 수영, 사이클, 달리기 세 종목을 쉬지 않고 연달아 치르는 경기이다.

아주 강한 체력과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철인3종경기는 3가지 종목의 균형 있게 훈련을 하는 복합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에는 국내 철인 상위 1% 선수를 중심으로 10여명의 정남진철인클럽을 구성해 활동중이다.

장성군,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내달 9일까지 47일 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관리

장성군이 여름철 폭염과 장마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장성군은 6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47일 간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녹조 악화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호우

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돌며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20개소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을 발의 예정이다.

또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24일~7월5일), 집중감시와 단속기간(7월8일~8월9일)을 나누어 단계별로 대응하고, 8월12~23일은 집중호

우 피해에 따른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기간도 설정해 예방과 단속을 탄력적으로 병행해 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점감시지역인 공단 주변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별감시 및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110번 또는 지역번호+128번으로 할 수 있으며, 장성군 환경위생과 주간 061-390-7338, 야간 061-390-7222 로도 가능하다.

나주시,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박차

화순군·광주시관광협회와 '남도 팸 투어' 업무협약



나주시는 오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8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과 마스터즈 수영대회 대회 기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화순군, 광주시 관광협회와 함께 '남도 팸 투어'를 추진한다.

나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이화실에서 화순군, 광주시 관광협회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마스터즈 수

영대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남도 팸 투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구중근 화순군수, 정길영 광주시 관광협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3개 기관 국·과장 등 부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대회 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남도 팸 투어' 운영을 비롯해 관광 체험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도 팸 투어'는 나주·화순 4개

관광지(운주사-고인돌공원-황포돛배-국립나주박물관)를 둘러보는 버스 투어로 이달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40회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관광협회는 내·외국인 관광객 모집을 위한 홈페이지 및 사전예약 시스템 운영, 관광문화해설사와 통역사 상시 배치 등 양 시·군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진행한다.

나주시는 주요 관광지 홍보 리플릿 및 체험 시설 정보 제공, 황포돛배 탑승비용 할인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힘써가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양 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소리전수관 국악교실 운영

담양군이 담양 출신 서편제의 대가 국악 이남지와 박동실의 맥을 이어 국악의 계승 보존과 대중화, 국제화에 앞장서기 위해 죽녹원 시가문화촌 내 우송당에서 담양소리전수관 국악교실을 운영한다.

우송당(又松堂)은 담양 경제를 좌우하던 우송 국채옹의 1920년대 건물로 전국의 재능 있는 젊은 국악인들이 수학하던 예인양성소 역할을 했으며 박동실이 판소리를 배우고 익힌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2004년 복원 이후 죽녹원 시가문화촌 내 위치해 판소리, 대금 등 담양전통의 서편제 맥을 잇고 배우는 담양소리전수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담양소리 전수관 국악교실에서는 한국판소리 전통음악연구소 권하경 명창을 강사로 민요, 장고, 판소리, 고법 4개 분야의 강좌가 열리며 국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실은 8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4개월간 기간 중 금요일과 주말에 각 분야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15일까지 한국예총 담양지부(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참6길 29)에 방문 및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총 담양지부(☎061-381-74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